



한덕수 국무총리, 중남미 9개국 고위인사 접견

- 2023 한-중남미 미래협력포럼 참석 계기 방한한 중남미 9개국 및 국제기구 고위인사와 한-중남미 협력 방안 논의

- 한덕수 국무총리는 5월 16일(화)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 한-중남미 미래협력포럼 참석 계기 방한한 중남미 9개국(브라질, 코스타리카, 도미니카공화국, 에콰도르, 엘살바도르, 멕시코, 파나마, 페루, 우루과이) 및 및 유엔 중남미카리브경제위원회(ECLAC) 고위인사를 접견하고 한-중남미 관계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.
- 한 총리는 1962년 우리나라가 중남미 15개국과 수교한 것을 설명하면서 60년 이상의 우호관계를 지속해 온 한-중남미 관계를 평가하고,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중남미 국가와 장기간에 걸친 지속가능한 협력을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.
 - 또한, 세계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민주주의·인권 등 가치를 공유하는 중남미 국가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, 핵심광물·방산·에너지·인프라·환경 등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나가자고 하였다.
- 이에 대해 중남미 9개국 고위인사들은 지난 60여년간 한국과의 협력을 평가하고 중남미 지역 경제개발 과정에서 우수한 기술력과 경험을 가진 한국 기업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화답했다.

담당 부서	국무조정실	책임자	과 장 박영철	044-200-2136
	외교안보정책관실	담당자	사무관 이채영	044-200-2139